

# 사회탐구영역

1

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.

예부터 낙동강의 은어는 임금님에게 진상해 왔기 때문에 백성들은 은어를 잡아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두었다.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은 강에 먹을 감으러 나가면 은어를 잡아 놓곤 했다. 이를 본 퇴계 선생은 "□ 법을 어겨서는 안 된다." 고 꾸짖곤 하였다. 그런데 어느 촌로 (??) 한 분이 선생을 보고 이렇게 나무랐다. "여름철에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 보면 물고기도 잡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, 그게 뭐가 나쁘다는 말씀이요? 사물의 이치에 거스르지 않는 것이 곧 □ 법이라고 나는 생각하오."

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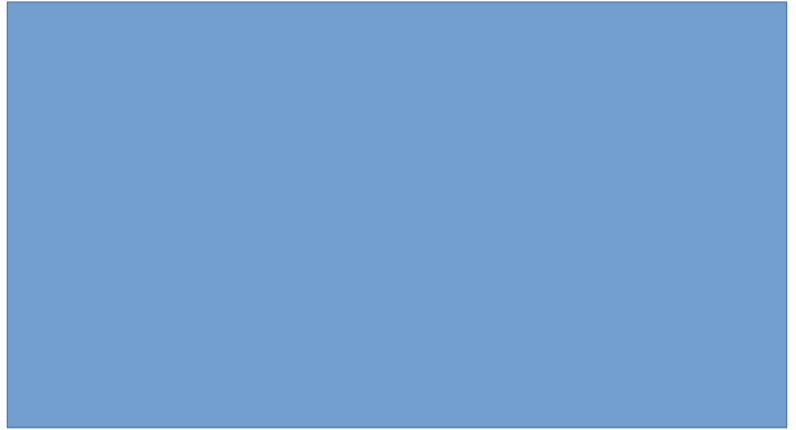
2 차 대전 당시 나치에 협력하여 수많은 프랑스인을 고문□살해했던 A 는 살인 및 국가반역죄로 수배되었으나 20 년이 지나도록 체포되지 않아 시효가 완성되었다. 그런데 1964 년에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법률이 제정되자, 1973 년 피해자 유족들은 그 법률을 근거로 A 를 다시 고소했다. 1989 년에 A 가 체포되자, 수 년 간의 논쟁 끝에 마침내 프랑스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.

- A 단체 회원 50 여 명은 대중교통 이용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며 시청앞에서 시위를 벌였다.
- B 씨 등은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환경권이 침해된다고 ○시를 상대로 공사 중지 처분을 요구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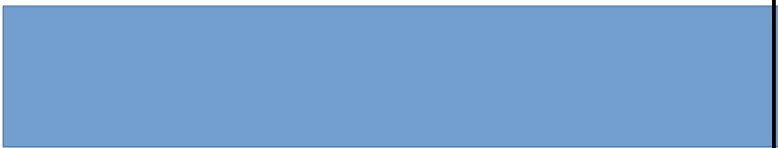
# 사회탐구영역

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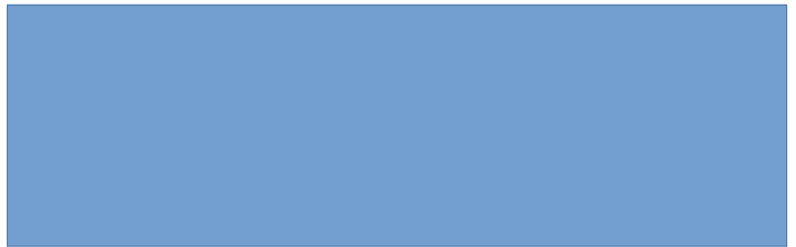
우리 헌법은 "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." 고 규정하고 있다 . ( 중략 ) 병역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. 그러므로 개인의 종교적 양심의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고 할 것이다 .



로 타당한 것을 <보기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

갑과 을은 아홉 살짜리 아들 병을 자녀로 둔 결혼 10년 차인 부부이다 . 이 둘은 10년 동안 함께 열심히 일하여 남편 갑 명의로 된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었다 . 하지만 최근에 성격 차이로 인해 다툼이 잦아지다가 마침내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, 필요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.



않은 것은?

[3 점]

- 선생님 : 이번 시간에는 사망시점을 심장사로 할 것인지 뇌사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론해봅시다 .
- 영 민 : 저는 사망의 기준이 심장 박동이 정지된 시점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.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됐다고 심장이 뛰고 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.
- 민 수 :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. 심장은 뛰고 있어도 뇌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그 기능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면 그 때를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.



# 사회탐구영역

3

- 개인의 소유권 남용으로 인해 다수 시민들의 권익이 침해되었다.
- 사회적 강자의 의지대로 계약이 체결되어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했다.

Q : 저는 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회사원입니다. 결혼한 지 10년 만에 전세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A : \_\_\_\_\_

이 법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철수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갑의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만 18세의 고등학생이다. 어느 날 회사원인 을(만 30세)의 집에 배달을 하러 갔다가 줄에 묶이지 않은 채 마당에서 뛰어 다니던 을 소유의 애완견에게 다리를 물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다.

- (가)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적합한 지에 대하여 판사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.
- (나) 설령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, 형법 등에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아니한다.

어떻게 하면... [3점]



# 사회탐구영역

김씨는 퇴직금으로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갖추고 구비서류를 해당 관청에 제출하였다.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관청에서 영업허가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다. 이에 김씨는 상급 관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되었다. 그래서 김씨는 사법(??) 적 구제수단을 강구하게 되었다.

- 태형(??): 가벼운 죄가 있을 때 작은 형장으로 친다.
- 장형(??): 죄가 다소 무거울 때 큰 형장으로 친다.
- 도형(◆?): 죄가 무거워 관에서 잡아놓고 힘든 일을 시킨다.
- 유형(??): 범한 죄가 매우 무거우나 차마 죽이지 못하고 먼 고장으로 쫓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.

# 사회탐구영역

5

